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2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4건과 3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2건, 황다랑어 8건, 눈다랑어 5건, 낙지 3건, 날개다랑어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2월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7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2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월 4주~2월 1주(1.22~2.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2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 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7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72~<0.073Bq/L, (^{137}Cs) <0.075~<0.079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 >

- 다음으로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18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어,
- 기존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지난 1월 26일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운영을 시작한 첫 주(1.26~2.1)간 11개 국가 15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수입 이력이 많고 국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품목 10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신규 10건 선정(노르웨이산 연어, 러시아산 명태, 일본산 가리비, 일본산 방어, 중국산 바지락 등)
- 이에 2월 8일 기준으로 6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제2 세습흡착장치 배기구 누설 상황 관련 >

□ 먼저, 어제(2.7) 도쿄전력 측에서 발표한 제2 세습흡착장치 배기구 누설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2월 7일 8시 53분경,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에 위치한 고온소각로 건물 동측벽면 배기구에서 오염된 물이 누출되고 있음을 작업자가 발견하였고, 즉시 관련 밸브를 닫아 누출을 차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세습흡착장치의 밸브 점검을 위해 여과수로 세정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도쿄전력은 음분 누출량을 약 5.5톤, 감마방사능 총량을 약 220억 Bq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누출된 물이 철판 틈새를 통해 토양으로 스며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지역을 차단하고 향후 토양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에서는 도쿄전력에서 공개하고 있는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으며,
 -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행하였으나, 지시값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이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 측 외교·규제기관 간 채널, IAEA 현장사무소 등을 통해 연락받는 체제를 구축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이번 누설은 ALPS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IAEA 측을 통해 각각 정보를 공유받은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상세발생원인 등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NRA 측에 문의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모니터링 현황 >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2.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2월 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